



즉시 배포용: 2023년 5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BIDEN**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재원을 동원해 뉴욕시에 도착하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

*주지사, FEMA, 미국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국에 지원 요청*

*주지사, 의회 의원, 카운티 간부, 시장들을 소집하여 42호 정책 만료에 대한 주 전체의 대응 논의*

*망명 신청자 입국자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대응에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 10억 달러 지원, 주 방위군 1,500명 동원, 가용 자원 증원 행정명령 등 포함*

**Biden** 대통령에게 보낸 **Hochul** 주지사의 서신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Biden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2호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전례없이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뉴욕주에 추가적인 연방 재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 주, 지역 지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오늘 오전 Hochul 주지사는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의 노력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의 초당파 의회 대표단과 뉴욕 카운티 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Counties), 뉴욕 시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망명 신청자들을 환영하고,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 우리 주에 오는 이 개인들에게 필요한 피난처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연방정부 지도자들에게 뉴욕에 대한 유연성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저는 정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손잡고 주 차원의 대응을 조율하고 이 새로운 도착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조치는 뉴욕에 망명 신청자들이 도착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최근 노력입니다. 이번 주 초, Hochul 주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주방위군 동원 인원을 1,50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정부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입법부와 협력하여 2024년 회계연도 뉴욕시 재정 예산에서 [약속](#)한 10억

달러의 자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쉼터 비용 7억 4,100만 달러, 방위군 운용 1억 6,200만 달러, NYC Care를 통한 의료 지원 1억 3,700만 달러, 공공 지원 2,600만 달러, 가족의 영구 주택 이주에 2,500만 달러, 임시 및 장애지원서비스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을 통한 지원 강화에 추가 500만 달러, 이주청(Office of New Americans)을 통한 법무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Biden 대통령, Mayorkas DHS 장관, Zients 비서실장, Klain 전 비서실장 및 다른 연방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전에 자금 지원과 대기 기간 단축에 관한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Biden 대통령님께:**

매주 수 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와 국립공원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 NPS)이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개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방 정부 부지와 부동산에 임시 대피소의 즉각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해 뉴욕주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게이트웨이 국립 휴양 지역 (Gateway National Recreation Area)내 플로이드 베넷 필드(Floyd Bennett Field)의 일부와 북동부에 걸쳐 해군 자원을 포함한 군사 시설에 대한 다른 공간의 사용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특히 보호 및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미국 질병통제센터(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소장은 42호 정책로도 알려진 격리 불가능한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특정인이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중지하는 공중보건 재평가 및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그들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여행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비시민"이 미국 육지와 인접한 해안 국경에서 또는 그 근처의 입국 항구 또는 미국 국경 순찰소에 모이는 곳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시는 (New York City, NYC) 120곳에서 36,700명이 넘는 이주자들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피난처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뉴욕시는 수십 개의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 및 구호 센터와 단기 임시 휴식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뉴욕시의 중간 수준 호텔 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뉴욕주는 많은 이주 입국자들의 수용과 다른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인프라, 시설, 자원이 부족합니다. 군사 시설과 플로이드 베넷 필드(Floyd Bennett Field)에 임시

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FEMA, DOD 및 NPS를 통한 연방 지원은 특히 대피소 및 주택과 같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요청을 좀 더 진척하기 위해 본인은 다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고 규모가 커서 효과적인 대응이 주정부와 영향을 받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벗어나 연방정부 차원의 보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에 대응하여 주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스탠퍼드법에 따라 주 비상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비연방정부 부담액을 FEMA에 배상할 것입니다.

C.F.R. 제44조 206.34항에 따라, 주정부는 이 원조와 관련하여 승인된 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 지역권, 그리고 방법상의 권리를 미국에게 비용 없이 제공하고, 요청된 작업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미국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구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연방 정부에 배상하고, 모든 지원 및 지역 관할권 문제에서 수행 연방 기관을 지원할 것에 동의합니다.

42호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임시 대피소를 건설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요청을 즉시 승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den 대통령께 보낸 Hochul 주지사의 서신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